

대만 해외시장동향 [2026년 7월]

'26. 7. 31.(금) / 한국관광공사 타이베이지사

[주요내용 목차]

1. 대만 관광시장 동향

1.1 대만 아웃바운드관광 시장동향

- '26.1~6월 월별 대만 아웃바운드 관광객수
- '26.1~6월 아웃바운드 목적지별 대만 관광객수
- '26.1~6월 대만 아웃바운드 동향

1.2 대만 인바운드관광 시장동향

- '26.1~6월 방대만 인바운드 관광객수
- '26.1~6월 주요국가 방대만 관광객수
- '26.1~6월 대만 인바운드 동향

1.3 대만 기타 관광시장 동향

[대만 인바운드 시장] △(일반동향) 상반기 외국인관광객 429만, 연간 목표 930만
대상 우려 확산, △(환승관광) 타오위안국제공항 환승객 669만명, 관광객은 5,500
명 불과, (정책사업) 동남아국가 무비자 입국 연장 실시 및 스마트관광 활성화, △
(관광서) 여름 한정판 Taiwan Pass 출시 및 구마모토 서 대만관광 홍보

[대만 아웃바운드 시장(일반동향 및 경쟁국 동향)] △(일반동향) 상반기 1천만 명 출국,
해외여행은 '일상소비', 일본·중국 인기, △(트렌드) 고가 해외여행상품 및 AI 추천 일
정 선호, 타이중공항 수요 증가, △(경쟁국_일본) 양국간 교류 활성화 기반, 항공편
증대 및 제도개선 등 지속, △(경쟁국_중국) 대만인 대륙여행 증가추세, 대만정부
'여행자제' 요구, △(항공) 중화항공, 에바항공, 스타릭스 등 대만 항공사 중심 한국
노선 증편

[대만 관광산업(국내관광포함)] △(정부조직) 대만관광연구교육원(台灣觀光研訓院)
개원, △(정책·제도) '크루즈 서비스 표준 계약' 시행, 일 단위 보상 청구 가능, △
(항공산업) 대만국적 항공사 상반기 역대 최고 실적 달성, △(트렌드) 반려동물 동
반여행 활성화, 업계에게 새로운 관광 비즈니스 기회

2. 방한관광 현황 및 전망

2.1 방한 대만관광객수 추이 및 특징

- '26.1-6월 방한 대만관광객수/ - 입국(공항) 루트별 대만관광객수 및 비중

2.2 방한 항공동향

- '26.1-6월 대만-한국 노선 운항편수 및 '25년 대비 증가율
- '26.6월 현재 주요 노선 운항편수 및 주요 분석

2.3 향후 전망: 견조한 성장세 지속 예상되나, 주식시장 및 일본상황 등 변수 존재

3. 타이베이지사 '26.7월 현재 추진 주요사업 및 동향

1. 대만 관광시장 동향

1.1 대만 아웃바운드관광 시장동향

○ 2026.1-6월 월별 대만 아웃바운드 관광객수 (단위 : 명)

구 분	'26년(a)	'25년(b)	'24년	a/b 증가율
1월	1,765,274	1,613,482	1,281,751	9.4%
2월	1,828,010	1,415,766	1,389,474	29.1%
3월	1,771,921	1,463,304	1,321,971	21.1%
4월	1,755,897	1,475,009	1,347,523	19.0%
5월	1,703,031	1,525,029	1,360,781	11.7%
6월	1,830,537	1,648,672	1,566,852	11.0%
1~6월	10,654,670	9,141,262	8,268,352	16.6%
7월		1,733,458	1,572,801	
8월		1,735,942	1,547,087	
9월		1,498,878	1,364,271	
10월		1,735,534	1,409,979	
11월		1,535,165	1,360,810	
12월		1,564,197	1,326,383	
계		18,944,436	16,849,683	

[출처] 대만 관광서 통계자료 정리 (※7.31 현재 '26.6월 데이터까지 발표)

○ 2026.1-6월 월별 아웃바운드 목적지별 대만 관광객수 (단위 : 명)

구 분	일본	중국	한국	베트남	태국	홍콩
1월 (비중)	687,698 (39.0%)	284,532 (16.1%)	163,616 (9.3%)	97,950 (5.5%)	102,407 (5.8%)	140,151 (7.9%)
2월 (비중)	685,066 (37.5%)	249,539 (13.7%)	180,547 (9.9%)	98,964 (5.4%)	113,774 (6.2%)	165,358 (9.0%)
3월 (비중)	640,025 (36.1%)	334,387 (18.9%)	191,864 (10.8%)	101,612 (5.7%)	86,256 (4.9%)	143,377 (8.1%)
4월 (비중)	641,304 (36.5%)	320,587 (18.2%)	188,206 (10.7%)	107,069 (6.1%)	81,037 (4.6%)	145,462 (8.3%)
5월 (비중)	612,475 (36.0%)	330,614 (19.4%)	188,644 (11.1%)	95,186 (5.6%)	73,824 (4.3%)	138,709 (8.1%)
6월 (비중)	666,434 (36.4%)	327,402 (17.9%)	219,477 (12.0%)	96,220 (5.3%)	85,937 (4.7%)	139,453 (7.6%)
(a) '26.1-6월 (비중)	3,933,002 (36.9%)	1,847,061 (17.3%)	1,132,354 (10.6%)	597,001 (5.6%)	543,235 (5.1%)	872,510 (8.2%)
(b)'25 비중*	35.5%	17.1%	9.7%	6.4%	5.4%	8.6%
(c)'24 비중*	35.6%	16.4%	8.5%	7.5%	6.7%	7.1%
(d)'23 비중*	35.8%	14.9%	8.1%	7.2%	6.6%	6.3%

[출처] 대만 관광서 통계자료 정리/ *각 년도 대만 아웃바운드에서 차지하는 비중

○ 2026.1-6월 대만 아웃바운드 동향

- 대만의 6월 아웃바운드 관광객수는 1,830,537명으로 전년 동기(1,648,672명) 대비 11.0% 증가하였음. 1~6월 누계로는 10,654,670명으로 상반기 아웃바운드 1천만 명을 돌파하였고, 전년 동기(9,141,262명) 16.6% 증가하였음
- 국가별로는 일본이 1~6월 3,933,002명으로 3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2024년(35.6%), 2025년(35.5%) 비중에 비해서도 증가하여 대만인의 일본 여행에 대한 선호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두 번째 해외여행 목적지는 중국으로, 1~6월 대만 아웃바운드 수는 1,847,061명으로 17.3%의 비중을 차지하였음
- 한국은 대만 아웃바운드 목적지 3위였으며, 1~6월 대만 아웃바운드 수 1,132,354명으로 비중은 10.6%를 차지하였음. 6월 아웃바운드 수는 219,477명으로 전월 대비 16.3% 증가하였으며, 역대 최초로 월 20만 명을 돌파하였음

1.2 대만 인바운드관광 시장동향

○ 2026.1-6월 월별 방대만 인바운드 관광객수 (단위 : 명)

구 분	'26년(a)	'25년(b)	'24년	a/b 증가율
1월	723,375	651,078	589,961	11.1%
2월	625,608	699,158	648,348	-10.5%
3월	883,061	778,576	811,608	13.4%
4월	758,613	751,149	610,146	1.0%
5월	692,784	710,933	581,748	-2.6%
6월	611,148	606,346	571,510	0.8%
1-6월	4,294,589	4,197,240	3,813,321	2.3%
7월		586,226	539,454	
8월		673,102	616,922	
9월		601,339	575,455	
10월		757,860	661,115	
11월		812,236	747,800	
12월		946,544	903,619	
계		8,574,547	7,857,686	

[출처] 대만 관광서 통계자료 정리 (※7.31 현재 '26.6월 데이터까지 발표)

○ 2026.1-6월 월별 주요국가 방대만 관광객수

(단위 : 명)

구 분	홍콩/마카오	일본	한국	미국	베트남
1월 (비중)	81,266 (11.2%)	120,310 (16.6%)	130,755 (18.1%)	56,056 (7.7%)	31,044 (4.3%)
2월 (비중)	90,056 (9.3%)	70,337 (11.2%)	96,313 (15.4%)	50,923 (8.1%)	41,169 (6.6%)
3월 (비중)	98,865 (11.2%)	166,393 (18.8%)	94,334 (10.7%)	79,914 (9.0%)	57,327 (6.5%)
4월 (비중)	116,758 (15.4%)	109,235 (14.4%)	82,621 (10.9%)	72,374 (9.5%)	36,859 (4.9%)
5월 (비중)	93,219 (13.5%)	117,617 (17.0%)	78,315 (11.3%)	60,252 (8.7%)	34,768 (5.0%)
6월 (비중)	90,731 (14.8%)	96,607 (15.8%)	43,437 (7.1%)	74,612 (12.2%)	39,958 (6.5%)
(a)'26.1-6월 (비중)	570,895 (13.3%)	680,499 (15.8%)	525,775 (12.2%)	394,130 (9.2%)	241,125 (5.6%)
(a)'25 비중*	15.3%	17.3%	11.9%	8.3%	5.0%
(a)'24 비중*	16.7%	16.8%	12.8%	8.3%	4.7%
(a)'23 비중*	18.5%	14.3%	11.5%	8.2%	5.9%
구 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중국
1월 (비중)	28,113 (3.9%)	33,064 (4.6%)	33,365 (4.6%)	68,517 (9.5%)	46,690 (6.5%)
2월 (비중)	27,312 (4.4%)	21,584 (3.5%)	26,968 (4.3%)	61,602 (9.8%)	58,062 (9.3%)
3월 (비중)	42,966 (4.9%)	47,795 (5.4%)	46,138 (5.2%)	79,900 (9.0%)	46,864 (5.3%)
4월 (비중)	30,013 (4.0%)	38,974 (5.1%)	43,936 (5.8%)	72,629 (9.6%)	49,794 (6.6%)
5월 (비중)	32,022 (4.6%)	36,084 (5.2%)	35,375 (5.1%)	62,800 (9.1%)	58,655 (8.5%)
6월 (비중)	21,925 (3.6%)	31,240 (5.1%)	26,444 (4.3%)	55,379 (9.1%)	50,114 (8.2%)
(a)'26.1-6월 (비중)	182,351 (4.2%)	208,741 (4.9%)	212,226 (4.9%)	400,827 (9.3%)	310,179 (7.2%)
(a)'25 비중*	4.5%	5.2%	4.8%	7.3%	7.4%
(a)'24 비중*	5.5%	5.7%	5.1%	5.9%	5.6%
(a)'23 비중*	6.7%	7.2%	6.1%	5.9%	3.5%

[출처] 대만 관광서 통계자료 정리/ *각 년도 대만 인바운드에서 차지하는 비중

○ 2026.1-6월 대만 인바운드 동향

- 대만의 6월 인바운드 관광객 수는 611,148명으로 전년 동기(606,346명) 대비 0.8% 증가하였음. 1~6월 누적치는 4,294,589명으로 전년 동기(4,197,240명) 대비 2.3% 증가하여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6월은 국지성 호우가 집중되며, 단오절 연휴 등으로 인한 교통 체증, 숙소 예약이 어렵기 때문에 인바운드 수요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며, 금년도 전월 대비 11.8%가 감소하였음
- 1~6월 기간 중 대만을 가장 많이 찾은 국가는 일본으로 680,499명이며 15.8% 비중을 차지하였음. 2위는 홍콩/마카오였으며, 570,895명이 방문하고 13.3%의 비중을 차지하였음. 3위는 한국으로 525,775명이 방문하며 12.2% 비중을 차지하였음
- 일본, 홍콩/마카오, 한국 등 주요 인바운드 관광객 수가 모두 전월 대비 감소하였는데 특히 한국은 전월 대비 44.5% 급감하여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1.3 대만 기타 관광시장 동향

대만 인바운드시장

- (일반동향) 상반기 외국인관광객 429만, 연간 목표 930만 대한 우려 확산
 - 관광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만 방문 외국인관광객은 4,294,589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3% 증가, 국가별로는 일본(68만, 15.8%), 홍콩(52.7만, 12.3%), 한국(52.5만, 12.2%), 필리핀(40만, 9.3%), 미국(39만, 9.2%) 순
 - 한편, 행정원은 그에 앞서 지난 6.30 관광산업 활성화 협의회 소집, 올해 외국인관광객 930만명 및 관광수입 NT\$9,000억 설정한 바 있으며 정부인사들은 연간 의지목표를 1천만명으로 언급중이어서 연간 목표달성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음
- (환승관광) 타오위안국제공항 환승객 669만명, 관광객은 5,500명 불과
 - 대만정부의 “대만섬 아시아 국제선 환승 허브화” 정책에 힘입어 2025년 기준 타오위안국제공항 환승객은 669만명, 하지만 이 중 타오위안에 체류한 관광객은 5,500명에 그침
 - 관광서는 환승객 대상 9개의 ‘반나절 환승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7시간 이상 체류, 비자 소지자(또는 무비자 대상 국가 출신) 등 자격 요건 및 3일 이전 예약 필요 등이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국은 개선 예정
- (정책사업) 동남아국가 무비자 입국 연장 실시 및 스마트관광 활성화
 - (비자간소화) 외교부, ‘신남방정책’ 의거 태국, 브루나이, 필리핀 대상

대만 무비자 입국 정책을 8.1일부로 1년간 연장 결정. 또한, 지정여행사 통한 단체관광객 입국절차 간소화 제도(觀宏專案)와 일정요건 충족 일부 국가 국민대상 조건부 무비자 제도(TAC)도 연장 실시로 입국절차 다방면 간소화 추진

- (스마트관광) 관광서, NAVITIME JAPAN 연계 외국인관광객 대상 교통안내 앱 서비스 개시. 교통통신부와 관광서가 나비타임에 데이터를 제공하면 나비타임은 환승 및 교통망, 관광명소 현황 등을 실시간 서비스하는 구조

○ (관광서) 여름 한정판 Taiwan Pass 출시 및 구마모토서 대만관광 홍보

- (Taiwan Pass) 관광서는 외국인 대상 통합 교통패스인 Taiwan Pass (대만철도 3일 무제한, 지하철이용권, 관광지할인 혜택 등 포함)의 여름 한정판 출시, 7.1일부터 전국 10대 브랜드 제휴 할인혜택과 동해안 Moonlight Sea Concert 티켓 제공
- (구마모토 홍보) TSMC 구마모토 공장설립후 대만-규슈간 항공편 급증하며 지역 내 친대만 정서와 브랜드 인지도 확산 분위기. 이에, 관광서, 관광협회, 가오슝관광국, 여행사 및 업계 대표단은 구마모토에서 B2B 미팅과 B2C 로드쇼 개최(6.25-29)

대만 아웃바운드시장(일반동향 및 경쟁국 동향)

○ (일반동향) 상반기 1천만명 출국, 해외여행은 “일상 소비”, 일본·중국 인기

- (해외여행시장 호황) 상반기 대만인 아웃바운드관광객 최초로 1천만 돌파한 1,065만 4천명 기록(16.6%↑). 해외관광객 급증으로 대만 관광산업 전반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업계와 매체의 분석.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의 ‘보복관광’ 형태는 점차 ‘일상소비’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대만 항공사들과 여행사들은 노선 확대, 편수 증대, 여행상품 다양화등을 통해 시장수요를 지속 자극하면서 수혜를 얻는 한편 전체 관광산업 공급망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 업계는 하반기까지 해외여행 호황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연간 아웃바운드관광객수는 처음으로 2천만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
- (타오위안공항이용객 증가) 이런 추세를 증명하듯, 대만 대표 국제공항인 타오위안공항의 올해 상반기 이용 승객수는 역대 최고치인

2,578만명을 기록했으며, 연간 최초로 5천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지난해 4,780만명)

- **(일본 인기지속)** 대만인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목적지는 일본, 인기 지속. JNTO 통계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일본방문 전체 외국인은 2% 감소(중국인 56.4% 급감 원인), 반면, 대만관광객은 20.9% 증가한 397만 기록, 한국에 이어 2위, 특히 2분기 기간 대만관광객 지출총액은 약 NT\$4,984 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9% 증가, 미국에 이어 2위 차지
- **(중국 급증)** 한편, 상반기 중국 대륙 방문 대만인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285만명으로 조사됐으며, 7월이후 양안 간 타이중-청두, 가오슝-닝보, 타이중-칭다오 등의 복항이 확대되어, 하반기 동 증가 세는 더욱 가파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

○ **(트렌드) 고가 해외여행상품 및 AI추천 일정 선호, 타이중공항 수요 증가**

- **(고가 여행상품 인기)** 대만의 주요 여행사들의 상반기 매출이 두자릿수로 성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특히 대만 주식시장 호황 등으로 고가 상품 판매량이 급증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짐. 소비자들은 저가 동남아 상품 대신 한국상품을, 기존 일본상품을 고급 여행상품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소비하는 행태를 보임. 특히, 라이온여행사의 경우 NT\$10만~20만(한화 500~1,000만원) 상당의 고가 상품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상반기 장거리 여행상품 매출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AI로 여행계획)** 한편, Klook에 의하면, 아태지역 여행자의 약 75%가 SNS에서 여행 정보를 얻고, 91%가 여행계획을 세울 때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36%는 AI추천 기반 예약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짐. 특히, 대만인의 경우 교통편(41%), 가격 및 여행상품 비교(39%), 새로운 여행지 및 서비스 탐색(38%)에 AI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타이중공항 활성화)** 대만 스타럭스항공은 타이중공항을 거점으로 '24. 3월부터 운영시작, 올해 6월까지 2년만에 타이중공항 이용 누적 출국객 100만 돌파 보도. 스타럭스는 타이중 출발 일본노선 6개, 부산노선, 베트남 2개 노선 및 마카오 노선을 운항중이며 올해 10월중 삿포로 노선 신설 예정임

- (상반기 상위 5위 목적지) 한편, 아고다의 분석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대만인들의 인기 해외여행 목적지는, 도쿄, 오사카, 홍콩, 후쿠오카, 부산 순이며, 처음으로 방콕이 제외되고 부산이 포함됨
- (경쟁국_일본) 양국간 교류 활성화 기반, 항공편 증대 및 제도개선 등 지속
 - (교류활성화) △대만정부, 기술, 문화, 식품, 관광 등 분야 최대규모 해외 B2B 행사인 TAIWAN EXPO 2026 JAPAN(2026年台灣形象展) 도쿄 개최(7.15~17) △닛코시장 포함 대표단 타이난시 방문, 타이난시는 양 시 우호관계 수립 17주년 기념 용강구 특정 지역을 ‘닛코거리’로 공식 명명 △타오위안시-지바현 우호교류협정 10주년, 지바현은 역내 식당 활용 타오위안 특산간장 사용 돼지고기 덮밥을 출시하여 기념 △대만철도청-일본도부철도 ‘대만-일본 철도 SL증기기관차 기술교류’ 공식출범식 개최(7.15)
 - (항공활성화) △(중화항공) ①타이중-오키나와 신규취항(7.21~), 타이베이-도야마 운항재개(8.20~), 타이베이-히로시마 증편(8.22~), 가오슝-오키나와 증편(9.15~) 및 여행사 협력 북규슈 직항 전세기 운항 확대 ②중화항공 이용객 대상 후쿠오카/구마모토/가고시마 규슈 JR패스 구매 NT\$2,000 할인('26. 7월~ '27. 3월) △(타이거에어) ①타이베이-오카야마 노선 운항 10주년 기념 모모타로 캐릭터 외부도색 및 내부장식 항공기 운항(7월~) ②타이베이-고치 노선 운항 3주년 기념 타이거에어-고치현-여행사 공동 4년차 청사진 및 신상품 발표 △(에바항공) 에히메현서 ‘에바항공 골프오픈’ 행사 개최, 관련 고급스포츠상품 판촉(~11.8)
 - (신규제도) △후쿠오카현정부, 1인 1박 3천엔 숙박 지원 프로그램 론칭(7.7~) △타이난시-12개 일본 자매도시 간 상호 관광명소 할인 프로그램 진행(7.1~) △일본정부는 외국인의 좌측 운전 체계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공항(홋카이도 신치토세 공항, 후쿠오카 공항, 오키나와 나하 공항) 주변지역 교통체계 개선 실시, 우회전 안내선, 충돌방지벽, 좌측운행 표지판 등을 집중 설치 △오버투어리즘 해소 위해 일본 유명도시 및 관광지는 ‘비거주자 추가 요금’제도 도입 추세. 외국인관광객 입장료는 인상하고, 거주민은 기존 가격 혹은 할인가격으로 관광지 입장이 가능한데 상반기에 히메지성, 나가노현 스키리조트와 온

천, 오키나와 놀이공원 및 일부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이 기 실시중
△도쿄 호텔 내년부터 객실요금의 3% 해당 숙박세 부과

○ (경쟁국_중국) 대만인 대륙여행 증가추세, 대만정부 '여행자제' 요구

- 올해 상반기 대만인 중국방문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5% 증가. 양안의 핵심 교류창구인 '소삼통' 교류인원은 108만명이며, 진먼 방문 중국인관광객은 8만명에 불과. 진먼현측은 양안간 운항 폐리 확대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중이나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
- 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 직항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취항을 개시한 저장룽항공의 타이중-청두 노선은 큰 인기를 끌어 100% 탑승률 기록중
- 이런 분위기에서 라이충통은 최근 "여행 중 실종되거나 구금된 대만인이 374명에 달한다며 불필요한 중국여행 자제"를 공식 언급한 바 있으며, 대만정부는 7.29일 '24.1.1~'26.7.22기간 총 402명이 중국서 실종 및 개인의 자유제한 상태이며, 특히 올해 들어 매월 16건씩 발생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
- 동시에, 대만정부에 의하면 최근 중국은 '통일전선 전략'의 일환으로 대만 젊은 교사들을 겨냥, 7박8일간의 '양안 청년 교사 신장위구르 여행'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짐. 교사들은 항공료 자부담 및 등록비 납부 조건으로 저렴하게 신장 위구르 지역 여행을 제공받았으며 대만정부는 이를 공산당의 '미래 세대 타깃 세뇌 공작'이라고 비난

○ (항공) 중화항공, 에바항공, 스타릭스 등 대만 항공사 중심 한국노선 증편

- (중화항공) 타이중-오키나와 취항(7.21~, 매일), 가오슝-김포 노선 재개(10.1~, 주 3회)
- (에바항공) △추석 연휴기간 타오위안-김해 노선 증편(9.2~10.24, 주 12회) 및 대형항공기(A330)로 교체
- (스타릭스) △타이중-삿포로 취항(10.2~, 주 5회), △타이베이-프라하 취항(8월~, 주 3회)
- (대한항공) 타이중-인천 노선 재개(10.25~, 매일)
- (에어로케이) 타이베이-청주 노선 증편(8~10월, 기간별 상이)
- (델타항공) 타이베이-라스베이거스 CES 특별 항공편 운항('27.1.5)
- (저장룽항공) 타이중-청두(7.28~, 주 2회)

대만 관광산업(국내관광포함)

- (정부조직) 대만관광연구교육원(台灣觀光研訓院) 개원
 - 교통통신부 관광서와 민간 기부금으로 공동 설립된 대만관광교육원 22일 공식 개원. 관광서 관광발전기금(NT\$3천만) 및 대만관광협회, 리젠트호텔, 라이온여행사 등 민간 10개 단체와 기업의 기부금(NT\$2천만)이 설립자금이며, '국제협력연구부', '산업 및 지역진흥부', '인재 양성 및 인증부'의 세 개의 조직으로 구성, 향후 관광정책 제도화 및 인재양성과 관광산업 발전계획 등 사업을 담당하게 됨
- (정책·제도) '크루즈 서비스 표준 계약' 시행, 일 단위 보상 청구 가능
 - 크루즈 여행 인기에 따라 관련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자 교통통신부는 '크루즈 서비스 표준 계약서 포함/불포함 항목'을 발표(7.27), 개별 여행객들의 크루즈 여정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 청구 방안 제공. 이에 일반 크루즈 여행객들의 크루즈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항해 지연 및 항로 변경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해 일 단위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 (항공산업) 대만국적 항공사 상반기 역대 최고 실적 달성
 - 에바항공, 상반기 총매출 NT\$1,283억, 여객매출 NT\$811억 기록, 모두 역대 최고 실적 달성. 특히, 구주/미주노선 탑승률 90%을 기록하여 성장을 보였으며, 일본/한국/중국본토 노선도 판매 호조
 - 스타러스, 상반기 총매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285.5억으로 역대 최고치, 항공사는 여객수요가 매출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기업은 분석
- (트렌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업계에게 새로운 관광 비즈니스 기회
 - 대만 반려동물수, 신생아수 초월, 반려동물 관련 사업은 연간 NT\$500억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여행'이 국내관광 트렌드로 새롭게 정착하면서, 대형 호텔 중심 '반려동물 동반 가능 객실'과 관련 시설을 경쟁적으로 조성하는 추세. 5성급 호텔 기준 일반객실 평균요금은 NT\$6,000, 반려동물 동반 가능 객실은 NT\$11,000으로 알려져 있음

2. 방한관광 현황 및 전망

2.1 방한 대만관광객수 추이 및 특징

○ 2026.1-6월 월별 방한 대만관광객수

(단위 : 명)

구 분	'26년(a)	'25년(b)	a/b 증가율	'26년 전체 방한객수(c)	a/c 비중
1월	166,779	135,434	23.1%	1,265,658	13.2%
2월	183,753	120,015	53.1%	1,431,472	12.8%
3월	192,138	140,017	37.2%	2,045,992	9.4%
4월	192,854	151,613	27.2%	2,027,860	9.5%
5월	191,795	150,272	27.6%	1,945,809	9.9%
6월	223,127	164,885	35.3%	1,993,128	11.2%
1~6월	1,150,446	862,236	33.4%	10,709,919	10.7%
7월		199,280			
8월		191,565			
9월		154,992			
10월		161,049			
11월		158,374			
12월		163,918			
계		1,891,414			

[출처] 한국관광 데이터랩

※ 2026.1-6월 한국-대만 방문객수

구 분	대만→한국	한국→대만	계
1월	166,779	130,755	297,534
2월	183,753	96,313	280,066
3월	192,138	94,334	286,472
4월	192,854	82,621	275,475
5월	191,795	78,315	270,110
6월	223,127	43,437	266,564
1~6월	1,150,446	525,775	1,676,221

○ 입국(공항) 루트별 대만관광객수 및 비중

(단위 : 명)

구 분	전체	인천	김해	김포	제주	대구	청주
'26.1월	166,779	78,932 (47.3%)	44,852 (26.9%)	12,046 (7.2%)	23,820 (14.3%)	2,074 (1.2%)	4,812 (2.9%)
'26.2월	183,753	82,277 (44.8%)	52,909 (28.8%)	13,299 (7.2%)	24,158 (13.1%)	3,796 (2.1%)	6,683 (3.6%)

'26.3월	192,138	76,238 (39.7%)	62,197 (32.4%)	13,299 (6.9%)	26,152 (13.6%)	3,141 (1.6%)	4,445 (2.3%)
'26.4월	192,854	78,191 (40.5%)	67,222 (34.9%)	12,855 (6.7%)	25,096 (13.0%)	3,428 (1.8%)	4,042 (2.1%)
'26.5월	191,795	73,857 (38.5%)	68,371 (35.6%)	13,227 (6.9%)	26,045 (13.6%)	3,081 (1.6%)	3,308 (1.7%)
'26.6월	223,127	85,726 (38.4%)	81,361 (36.5%)	14,681 (6.6%)	27,514 (12.3%)	3,926 (1.8%)	4,410 (2.0%)
'26.1-6월 누계	1,150,446	475,221 (41.3%)	376,912 (32.8%)	78,997 (6.9%)	152,785 (13.3%)	19,446 (1.7%)	27,700 (2.4%)
'25년 전체**	1,891,414	884,121 (46.7%)	509,136 (26.9%)	144,491 (7.6%)	211,121 (11.2%)	65,143 (3.4%)	41,385 (2.2%)
'24년 전체*	1,473,908	722,453 (49.0%)	361,863 (24.6%)	123,098 (8.4%)	133,256 (9.0%)	73,467 (5.0%)	27,991 (1.9%)

[출처] 한국관광 데이터랩/ [참고] ()은 전체 입국루트에서 차지하는 비중

* (무안) 591명, (양양) 4명 ** (무안) 0명, (양양) 2명

○ 주요 분석

- 2026년 6월 방한 대만관광객 수는 223,127명으로 전년 동기(164,885명) 대비 35.3% 증가하였음. 방한 대만 관광객은 '26년 매월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1~6월 누적 방한객은 1,150,446명으로 1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지난 해 동기 대비 33.4% 증가하였음
- 월별 방한 대만관광객 수가 최초로 20만 명을 넘어서고, 전체 방한 관광 시장에서 10% 이상 비중을 차지하며 주요 시장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음. 한-대만은 상호 해외여행 목적지 3위로서 핵심시장으로 자리매김함.
- 2026. 6월 방한 대만관광객 수의 각 공항별 이용 비중은 인천 38.4%, 김해 36.5%, 김포 6.6%, 제주 12.3%, 대구 1.8%, 청주 2.0%로 나타남. 인천 공항으로 입국한 대만관광객은 85,726명으로 전체 대만관광객의 38.4%를 차지하여 여전히 최대 입국 관문 역할을 유지하고 있음. 다만, 인천 공항 비중은 2026년 1월 47.3%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반면 김해공항 입국 비중은 1월 26.9%에서 꾸준히 상승하였고, 6월에는 9.6%p 증가한 36.5%를 기록하며 양 공항 격차가 크게 축소됨.
- 6월에는 4개 항공사(스타렉스, 중화항공, 에바항공, 이스타항공)이 대만-부산 7개 노선 총 35편을 증편하며 대만 방한객의 김해공항의 입국 비

중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음.

- 한편 1~6월 기준 각 공항 입국객수 가운데 대만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 표와 같으며, 이를 통해 지방공항 국제선 수요에 있어 대만 관광객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수준임을 알 수 있음.

구 분	전체	인천	김해	김포	제주	대구	청주
전체	10,709,919	6,802,082	1,014,341	697,820	826,352	57,058	62,971
대만	1,150,446	475,221	376,912	78,997	152,785	19,446	27,700
대만비중	10.7%	7.0%	37.2%	11.3%	18.5%	34.1%	44.0%

2.2 방한 항공동향

○ '26.1-6월 대만-한국 노선 운항편수 및 '25년 대비 증가율 (단위 : 편)

구 분	'26년(a)	'25년(b)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전월대비 증가율
1월	2,837	2,486	14.1%	3.4%
2월	2,654	2,215	19.8%	-6.5%
3월	2,902	2,381	21.9%	9.3%
4월	2,871	2,274	26.2%	-1.1%
5월	2,962	2,377	24.6%	3.2%
6월	2,794	2,227	25.5%	-5.7%
1-6월	17,020	13,960	21.9%	-
7월		2,440		
8월		2,460		
9월		2,285		
10월		2,622		
11월		2,628		
12월		2,745		
계		29,140		

[출처] 한국항공협회 항공포털/ [기준] 정기+부정기, 출발편+도착편

○ '26.6월 현재 주요 노선 운항편수

(단위 : 편)

구 분	'26.6월	'26.5월	'26.4월	'26.3월
타이베이-인천	710 (-7.1%)	764 (1.9%)	750 (-1.1%)	758 (3.4%)
타이베이-김해	770 (-1.2%)	779 (3.6%)	752 (-0.7%)	757 (19.6%)
타이베이-대구	60 (-3.2%)	62 (-3.1%)	64 (3.2%)	62 (3.3%)
타이베이-제주	240 (-1.2%)	243 (-0.4%)	244 (-1.6%)	248 (8.8%)
타이베이-청주	92 (-25.8%)	124 (4.2%)	119 (-32.8%)	177 (-9.1%)
타이베이(송산)-김포	120 (-3.2%)	124 (3.3%)	120 (-3.2%)	124 (10.7%)
가오슝-인천	181 (0.6%)	180 (-)	180 (-3.2%)	186 (10.7%)
가오슝-김해	179 (-3.8%)	186 (4.5%)	178 (36.9%)	130 (16.1%)
가오슝-김포	94 (-6.0%)	100 (6.4%)	94 (-9.6%)	104 (8.3%)
가오슝-제주	68 (-4.2%)	71 (6.0%)	67 (-5.6%)	71 (10.9%)

타이중-인천	178 (-28.2%)	248 (3.3%)	240 (-3.2%)	248 (10.7%)
타이중-제주	16 (-15.8%)	19 (11.8%)	17 (-)	17 (6.3%)
타이중-김해	70 (59.1%)	44 (4.8%)	42 (950.0%)	4
화렌-인천	16 (-11.1%)	18 (12.5%)	16 (-)	16 (-)

[출처] 한국항공협회 항공포털/ [기준] 정기+부정기, 출발편+도착편

[참고] ()는 전월 대비 증가율

○ 주요 분석

- 2026년 6월 한-대만 운항편수는 2,794편으로 전년 동기(2,227편) 대비해서는 25.5% 증가하였으나 전월(2,962편) 대비로는 5.7% 하락함. 이는 6월이 5월보다 하루가 짧아 약 96편의 자연 감소 요인이 발생한데다, 타이중-인천(-28.2%, 70편)/타이베이-청주(-25.8%, 32편)/타이베이-인천(-7.1%, 54편) 등 주요 노선에서 운항 중단 및 운항 횟수 조정이 이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 대한항공은 기존 매일 1회 왕복하던 타이중-인천 노선을 6월부터 잠정 중단했으며, 현재 기준으로 10월 24일까지 운항 중단이 예정됨. 에바항공도 4월~5월 타이베이-인천 노선에 주 4회 추가 투입했던 임시 증편을 5월을 끝으로 종료함
- 반면 타이중-김해 노선은 전월 44편에서 70편으로 26편, 59.1% 증가했는데, 이는 스타릭스 항공이 6월부터 타이중-부산 노선을 신규 취항하면서 월 26편의 운항편이 추가된 데 따른 것임
- 타이베이-김해 노선은 6월 770편으로 전월보다 9편 감소했으나, 일평균 운항편 수는 25.1편에서 25.7편으로 증가함. 월간 날짜 수 차이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운항 공급은 전월 대비 소폭 확대된 것으로 분석됨
- 가오슝-김해 노선은 179편으로 전월보다 7편 감소했으나, 일평균 기준으로는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 타이중·타이베이·가오슝발 김해 노선의 합산 운항편 수는 전월 1,009편에서 1,019편으로 증가했으며, 날짜 수를 보정한 일평균 기준으로는 약 4.4% 늘어 김해 노선의 확대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남
- 2026년 1~6월 누계 한-대만 운항편 수는 17,020편으로 전년 동기 13,960편 대비 21.9% 증가함. 특히 6월 단일 기준으로는 25.5%증가해, 일부 노선의 일시적인 조정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항공 공급 확대 기조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7~8월에는 김해와 청주 노선을 중심으로 정기 증편 및 한시적 증편이 예정돼 있어, 한-대만 간 운항 공급의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2.3 향후 전망

○ 견조한 성장세 지속 예상되나, 주식시장 및 일본상황 등 변수 존재

- (통계적 분석) 대만 통계 기준, 올해 상반기 전체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는 10,654,670명으로 16.6% 증가, 1~3위 순위 목적지별 일본 20.2%, 중국 21.5%, 한국 35.9% 증가로 나타나, 여행수요의 일본, 중국, 한국 집중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으며, 특히 한국시장의 고성장이 눈에 띈다. 또한 전체 아웃바운드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0.6%로 지난해 동기 대비 1.5%p 상승하여, 일본의 1.1%p 상승 및 중국의 0.7%p 증가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 (시장환경적 분석) [경제] 대만 중앙연구원 경제연구소, <2026년 대만 경제전망 수정안> 발표(7.13), 올해 대만 GDP 성장률은 기준치보다 6.45% 상향된 10.16%으로 조정했으며 그 근거로 'AI 글로벌 수요 지속', '미국관세 확정으로 불확실성 해소', '수출/투자/자본시장 동시 활성화에 따른 민간소비 수요 촉진'을 언급. 동시에 국유기업 흑자 전환에 따른 고액성과급 지급, 노동기금 역대 최고 수익에 따른 고액 배당금 지급, 반도체/IT 산업 종사자 평균임금 큰폭 증가 등에 따른 일반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가 해외여행 지출소비를 확대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다만, 7월 들어 대만 증시 하락, 물가 상승 압박(상반기 평균 1.70%↑, 5~6월 평균 2.4%↑) 등의 요소가 상반기의 맹렬한 해외여행 수요 증가세를 둔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대두. [정치·정책] 하반기 실시예정인 지방선거(11월)와 국내여행인센티브제(9월 예정) 역시 해외여행 수요를 제한하는 효과가 일정부분 있을것으로 업계는 전망
- (경쟁국 분석) 7.28일 일본 구마모토 7.1 대지진이 최대 성수기인 8월 여행수요에 어느정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됨. 7.29일자로 대만발 구마모토 항공노선은 즉시 정상화되었으나 항공사와 여행사들은 취소시 전액환불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체들은 구마모토 여진과 관광지 폐쇄 등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어, 규슈지방 중심 일본 여행 수요의 (일시적) 감소가 예상됨 ※단, 하반기 중 '여행으로 일본

(구마모토) 지원' 형태의 대만 정부단위 캠페인은 있을 수 있음

- (여행업계 상품 분석) '가족단위 해외여행은 일상소비'라고 대만 업계와 매체들이 언급할 만큼 해외여행이 일상화되어 있는 현재 대만의 여행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얻고 있는 목적지는 일본과 한국인데, 가격 및 거리, 상대적 풍부한 관광자원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여행상품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 이유. 다만 최근 들어 여행사들이 분석하는 방한상품 판매에서의 특징은 ①출발 임박 예약 ②부산·제주(일부 지방) 상품판매 위주 ③저가·특가상품에 소비자 반응 등임. 여행이 일상화 되면서 한국수요는 지속되나, N차 방문객의 경우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중심 개별여행을 선호하는 추세이며, 여행사를 통한 예약은 지방 및 특가상품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또한 대만 항공사 중심 하계 기간 부산, 제주 항공편이 증편되고 있으며, 하반기 중 타이중 및 가오슝 지방 출발 항공편도 확대될 예정이어서 항공좌석 공급량 증대에 따른 수요확충도 기대할 수 있겠음

⇒ (종합전망) 종합적으로 방한시장은 단기·중기 견조한 성장세 지속이 예상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일본 지진으로 인한 일부수요의 한국 전환이 있을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대만 경제상황(주식시장 및 물가) 및 정책(일본지원 및 국내여행 장려)에 따라 수요감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한편, 하반기 주요 방한수요는 개별, 가족, 지방여행의 형태일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지방여행의 경우 한국관광공사 타이베이지사가 국내지사 및 지자체(RTO), 대만업계와 공동으로 특판중인 'Taiwan Only' 시리즈 단체상품* 중심 활성화가 기대됨

* 하반기 Taiwan Only 상품(대만 단체관광객 전용 이벤트/혜택 지원 상품) : ①전주 비빔밥 여행 w/ 윤남노 셰프(9.7) ②떡볶이&김밥축제(대구, 김천, 10월) ③부산불꽃축제 w/ 급식대가(부산, 11.7)

3. 타이베이지사 '26.7월 현재 추진 주요사업 및 동향

- 3.1 2026년 하반기 여행업계 모객광고지원 실시(7~12월)
- 3.2 지방공항 연계상품 및 전세기 상품 특별지원 추진(7~12월)
- 3.3 항공업계 협업 방한 항공 프로모션 실시(7~12월)
- 3.4 2026 Taiwan Only 사업(함안낙화놀이/7.4) 모객지원
- 3.5 대만 개별관광객 활성화 캠페인 '한국의 일상이 바로 여행이야, enjoy K-local 캠페인 추진(중화항공·라이언여행사 협업)
- 3.6 OTA(Klook), 주요 여행사(ezfly, ezTravel, Colatour) 공동 FIT 여행상품 프로모션 추진
- 3.7 '한국 중부관광의 해' 여행 후기 공유 및 사진공모전 추진
- 3.8 타이완국제여전(ITF) 참가자 모집 실시(7.15~7.27/투어라즈)

※ 언론매체(연합보, 나우뉴스, 뽀바오, 자유시보, 중국시보, 뽀치, 공상시보, TVBS, 중앙통신사(CNA) 등), 대만 관광서, 대만관광협회, 대만여행업품질보장협회,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한국항공협회 항공포털 및 업계동향 등 종합. 끝.